

- 활력 있는 직장생활을 위한 - 해외 배낭여행 결과 보고서

- ☐ 팀 명: 꿈의 여행
- ☐ 여행목적: 평소 동경해 오던 히말라야 트레킹 체험과 네팔의 문화를 가까이서 보고 느끼며 폭넓은 시야 확보
- ☐ 기 간: 2018. 6. 29.(금) ~ 7. 7.(토) [7박 9일]
- ☐ 여행국가: 네팔(카트만두, 포카라, 푼힐전망대 등)
- ☐ 참가직원: (팀장) 장 사 시 설 팀 김귀석
(팀원) 교 량 시 설 팀 정세일
주 차 관 리 팀 진경숙
어 린 이 대 공 원 차미라
장 사 운 영 팀 박분례

해외 배낭여행 결과보고서

(여행팀명: 꿈의 여행)

1. 개 요

- 여행목적: 평소 동경해 오던 히말라야 트레킹 체험과 네팔의 문화를 더 가까이서 보고 느끼며 폭넓은 시야 확보
- 여행국가: 네팔(카트만두, 포카라)
- 여행기간: 2018. 6. 29.(금) ~ 2018. 7. 7.(토) (7박 9일)
- 참 가 자: 5명(김귀석, 정세일, 진경숙, 차미라, 박분례)

2. 일정별 배낭여행 수행내용

일 자	도 시	이동수단 (교통)	내 용	비 고
1일차 (6. 29. 금)	인 천 카트만두	항 공	▪부산 → 인천 ▪인천 → 카트만두(6시간 40분 소요, 시차: -3h)	
2일차 (6. 30. 토)	카트만두 포카라	항공 차량	▪카트만두 → 포카라 이동(항공) ▪페와 호수, 시바사원, 종유동굴, 데이비스 폭포	
3일차 (7. 1. 일)	포카라 올레리 고라파니	차량 도보	▪푼힐전망대(3210m) 트레킹 출발 (팅게둥가-올레리-반단티-난게판티-고라파니) ▪고라파니 도착(8시간 트레킹) 후 롯지 체험	
4일차 (7. 2. 월)	고라파니 포카라	도보 차량	▪고라파니 ↔ 푼힐전망대(2시간 트레킹) (히말라야 설산 및 일출감상) ▪고라파니 → 티게둥가(6시간 트레킹) ▪포카라 이동 및 티베트 난민촌	
5일차 (7. 3. 화)	포카라 카트만두	차량 항공	▪사랑콧 전망대(만년설 및 일출 감상) ▪여행자 거리(랙사이드) ▪포카라 → 카트만두 이동(항공)	
6일차 (7. 4. 수)	카트만두	차량 도보	▪보드넛 사원(동양 최대 불교사원) ▪타멜시장	
7일차 (7. 5. 목)	카트만두	차량 도보	▪달발광장(구왕릉, 쿠마리 사원 등) ▪스얌부나트 사원(네팔 최고의 불교 사원) ▪파난시티 왕궁(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8일차 (7. 6. 금)	카트만두	차량 도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빅타푸르 더르바르 광장, 네와리족 생활상, 파슈파티나트 힌두사원 등) ▪귀국: 카트만두 → 인천(6시간 30분 소요)	
9일차 (7. 7. 토)	인천 부산	항공	▪인천공항 → 김포공항 → 김해공항 ▪김해공항 도착 후 해산	

♣ 강우로 인한 현지의 도로 유실로 인하여 이동수단 등 탐방일정 변경

[1일차] 2018. 6. 29.(금)



← 네팔

- 위 치: 아시아 히말라야 산맥 중앙
- 면 적: 147,181km²
- 수 도: 카트만두
- 인 구: 약29,624,035명 (2018 추계)
- 화 폐: 네팔 루피 (Rp)
- 기 후: 몬순성 기후, 아열대성 기후
- 종 교: 힌두교(81%), 불교(11%), 이슬람교

부산(인천) → 카트만두 국제공항 →

- 네팔여행 첫 발을 내딛는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은 네팔의 "트리부반" 왕의 이름을 딴 것이며, 공항 안에서 비자발급과 네팔 루피로 환전한 후, 출입심사대를 나오니 우리나라 어느 소도시 같은 분위기다.



[2일차] 2018. 6. 30.(토)

포카라 이동 ↓

-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는 약 200km로 당초 버스를 타고 이동(5~6시간) 할 계획이었으나 폭우로 인한 도로 유실 우려 등으로 30명 정도 탑승하는 쌍발 비행기(기장 1명, 승무원 1명) 이용으로 30분만에 도착하여 여유 있는 일정
- 기내에선 사탕과 믹스커피를 제공했으며, 오른 쪽에 앉아야 히말라야 설산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기상악화로 구름이 걷히는 짧은 순간에만 봐야 해서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숙소는 dandelion호텔



↑ 페와 호(Pheqa Tal)

- 히말라야 설산에서 녹아내린 물이 형성된 면적 약 4.4km²의 네팔에서 2번째 큰 호수로 만나푸르나, 마차푸차레 봉이 보임(오염방지를 위하여 나룻배 운용)
- 페와 호수 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에는 "혼인의 사원"이라고도 하는 힌두교 사원인 바라히 사원이 있는데 시바신의 부인 화신을 모시고 있으며, 닭이나 오리, 양 등을 공양한 후, 사원을 한 바퀴 돌면 자신의 연인과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하여 네팔 왕실사람들까지 이곳에 와서 혼인 서약을 한다고 한다.

[바라히 사원 전설]

먼 옛날 시바신이 거지로 변장하여 마을을 찾아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였다. 그 거지가 시바신임을 알리가 없는 마을 사람이 전부 거절하며 쫓아내었는데 농사를 지으며 가난하게 살던 노부부만이 그를 맞이하여 정성스럽게 대접하였다. 식사를 마친 시바신은 큰 재앙이 닥칠테니 빨리 마을을 떠나라고 노부부에게 알려주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노부부는 서둘러 집을 떠나 산등성이에 올랐는데, 언덕을 반쯤 오른 후에 마을을 돌아보니 마을은 큰 호수에 잠기고 커다란 호수만이 보였다. 이에 노부부는 자신들이 대접한 거지가 시바신임을 깨닫고 호수 한 가운데에 있는 섬에 그를 받드는 사원을 세운 것이라고 함

'굽테스와라 마하데브 동굴'과 '데비스 폴' ↓

- '굽테스와라' 는 동굴에 있는 사원이라는 뜻이라고 하며, 10년전에 이 종유동굴에서 수행하던 한 힌두교 수행자가 이곳에 시바신이 모셔져 있는 꿈을 꾸고서, 이곳 내부를 조사한 결과 정말로 동상이 발견되었다고 함.
- '파탈레 창고'라 불리던 '데비스 폴'은 1961년 인근에서 캠핑하던 스위스인 부부 중 아내인 데비스가 범람한 물에 휩쓸려 이 폭포수 아래 굴속으로 빨려 들어가 실종된 후 불렀으며, 지하 동굴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아찔하게 느껴질 정도임



[3일차] 2018. 7. 1.(일)

퐁힐전망대를 향한 트레킹 출발 ↓

- 04:30 기상, 약 3시간 40분 짝 차량(왕복 11000루피)으로 이동 후 트레킹 시작
- 차량 이동 중에 일부 산사태로 도로가 유실된 구간이 있어서 우회하거나 돌 등을 치우며 이동하여 나야폴에 도착하여 간단한 빵과 커피로 아침밥을 먹고 험한 도로 위를 혹시 안전사고가 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함 속에 달려 '티게둥가' 마을의 See You Lodge에 도착(9:13)하여 트레킹 준비를 한다.
- 나야폴에서 입산신고를 하고 조금 지나 엄홍길 대장이 세운 초등학교 안내 간판이 우리를 반겼다. 학교에서 기념촬영도 하고...^^



팅게둥가 → 올레리 구간 →

- 트레킹 코스 확인 후 출발(9:35)하여 티게둥가 마을을 지나면 브런디코라 계곡 다리를 건너면 올레리까지 2시간이상 계속되는 돌계단 길로 퐁힐코스 중 가장 힘든 길이지만...
- 맑은 날이면 안나푸르나 남봉(7,219m), 히운출리봉(6,441m), 마차푸차레봉(6,993m) 등을 보며 오르는 길이다.
- 잔뜩 찜뻐린 날씨에 안개까지 자욱하여 조망은 찾을 수 없고, 간간이 짐을 잔뜩 지고 하산하는 포터(짐꾼)들과 뭇지를 만난다.
- 오를수록 호흡은 더 거칠어지고 온 몸이 땀에 젖고 지쳐갈 때 작은 마을과 현지인들을 만난다.
- 트레커도, 포터도, 당나귀들도 쉬어 가도록 마을 앞이나 일정 거리마다 돌을 쌓아서 만든 '초우따라(chautara)'라고 하는 쉼터와 길바닥과 지붕 등에 넓고 얇은 돌을 사용한 것이 인상적이다.
- 히운출리봉(6,441m), 마차푸차레봉(6,993m)의 설산을 바라볼 수 있는 올레리는 마을이 커서 뭇지들도 여럿 있지만 비수기이어서인지 빈 뭇지가 많았다.

♣ 맑은 날 올레리에서 본 안나푸르나 남봉(7219m)과 히운출리(6441m) →





← 올레리 → 반단티 구간

- 올레리 마을 도착 전부터 내리던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자욱한 안개로 조망은 어디에도 없다.
- 올레리 마을을 지나 임도 삼거리에서 40여분 후 반단티(2,300m) 도착(12:35)하니, 빗줄기는 더욱 굵어진다.
- 마차푸타 게스트하우스에서 '달бат'이라는 현지식으로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며 기력을 충전한다.
- 식사와 휴식 후 기념 촬영에 웃으며 응해 주시는 모습들이 소박하고 무척 여유로워 보인다.

반단티 → 낭게탄티 구간 →

- '주가'라고 하는 산거머리가 나무에서도 떨어져 피를 빨아 먹는다는 구간에서는 조심을 했건만 일행 모두 피를 보는 추억을...^^



- 12:45 반단티 출발...마을 위부터 완만한 탐방로를 따라 고라파니 중간지점인 낭게탄티 도착(15:15)

♣ Hungry Eye 롯지 이름이 인상적이다.



낭게탄티 → 고라파니 →

-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던 거머리가 풀숲뿐만 아니라 돌, 나무 등에서 공격(?)을 해와 신경을 써서인지 피로감과 체력저하가 급격하게 나타난다.
-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지만 산거머리 공포(?)가 없어지는 구간까지는 우의를 벗을 수 없어 우중산행 복장을 유지해야 했다.
- 2시간 후(17:15) 고라파니 출입 허가증을 발급 받고 15분가량을 오르니 오늘 밤을 묵을 롯지가 있는 고라파니(2,860m)에 도착.

♣ 주요 운반수단으로 말을 이용하며 약 60kg 정도의 중량물을 운반함 →

- 내일 새벽 기상과 함께 할 훈힐 전망대 일출감상 트레킹을 기대하며, 롯지에 여정을 풀고 저녁 먹을 때 롯지에서 파는 신라면을 주문해 먹어보니 현지인 입맛에 맞게 중국에서 생산한 것이어서 우리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 난로를 가동하여 이용객의 추운 몸도 녹이고 젖은 세탁 옷을 말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침구류가 위생적이지 않다는 글들을 봤었는데 깨끗해서 포근하게 잘 잔 것 같다 →



▲ '주가' 라고 하는 산거머리



【4일차】 2018. 7. 2.(월)



← 고라파니 ↔ 푼힐전망대

- 히말라야 일출과 설산을 본다는 기대와 설레 임으로 03:10 기상, 04:15 출발, 05:20 전망대 도착 하였으나 잔뜩 낀 안개와 구름 사이로만 볼 수밖에 없어 인정 샷으로 아쉬움을 달랜다.
- 06:00 하산(35분소요) 및 조식 후
- 08:00 텅게둥가로 출발



푼힐 → 포카라 복귀 →

- 어제 힘겹게 올랐던 길을 따라 약 6시간을 걸으며 현지인들의 생활과 건축물 등을 보며 하산 길은 여유가 있다.
- 돌아오는 차도에도 산사태 발생으로 한참을 기다려도 개통되지 않아 우회하여 오게 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 나야풀의 입산 통제소에 다시 신고하고 포카라로 출발했는데 누군가가 흔들어서 깨어 보니 숙소 앞이다. 힘들었지만 푼힐 트레킹은 새로운 도전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멋진 일정이었다.



【5일차】 2018. 7. 3.(화)

사랑콧 전망대 →

- 04:20 기상하여 사랑콧 전망대를 올랐으나, 기대했던 것에 비해 규모와 분위기에 실망이 컸다.
- 흐린 날씨로 만년설과 일출은 보지 못하고 모닝커피와 새벽 풍광만 담아 온다.

♣ Raw been Thapa 라는 상점 직원이 '꼬리언' 하면서 자기도 한 컷 담아 달라고 한다. →



↓ 티벳 난민촌

- 호텔체크아웃과 현지인이 운영하는 '서울뚝배기'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네팔 속의 티벳을 볼 수 있다는 난민촌을 찾았다.
- 1951년 중국에 티벳이 점령되고 박해가 심해지자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에 정착한 난민촌이 11개소가 있으며 (♣ 수제 방석 1개 짜는데 4일, 가격은 61\$)
- 1959년 달라이 라마의 망명을 기점으로 티벳인의 망명은 지금도 이어진다고 함.

♣ 난민촌에서 생산되는 '티벳산 카펫' 은 난민들의 주요 수입원이며 유명한 관광 토산품임.



← 포카라 → 카트만두

- 예약된 기편과 상관없이 좌석만 있으면 탑승할 수 있어, 1시간 이상 빨리 포카라 공항 이륙
- ♣ 카트만두나 포카라 공항 수화물은 공항 현장직원과 수화물표 확인 후 인수인계 하는 아주 수동적이다.

【6일차】 2018. 7. 4.(수)



◀ 보드넛트 불교 사원

- 라마불교 동양 최대 석탑이자 부처님 사리를 모신 곳으로 수많은 관광객과 순례자들이 찾는 명소 중에 명소이다. 탑 위에는 용서와 화해를 상징하는 부처님의 두 눈이 동서남북으로 그려져 있다.
- 탑 주변에는 네팔로 들어와 많은 티벳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마니차를 돌리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따라 돌려보기도 하였음
-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로 상점들 처마 밑에 비를 피하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주인들도 불평불만 없이 오히려 들어오라고 한다. 불화를 그리는 수강생들의 진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파탄시티 왕궁

- 유네스코 지정된 고대왕궁으로 처음 입장료는 500루피... 안에 있는 사원마다 별도의 입장료를 또 내야 한다.(네팔인은 무료)
- 1997년 왕궁 일부를 개조하여 개장한 박물관은 섬세한 조각품 같은 목조 건축물로 전시물품 관람하면서 시원해서 좋았다.
- 사원 대부분이 2015년의 지진 피해로 지지대로 고정해 유지하거나 보수 중이다



↓ 타멜거리(여행자 거리와 전통춤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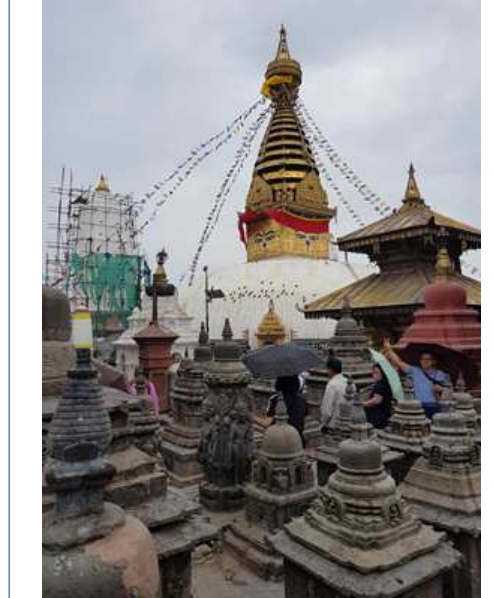
- 카트만두에서의 식사, 쇼핑 등을 위한 자유 시간을 여행자들이 많이 모이는 카트만두 최대의 시장이라고 하는 타멜시장에서 주로 보내게 되는 것 같다.
- 히말라야 트레킹을 위한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저렴하게 준비 할 수 있다. 중심부에 있는 상점가는 골목마다 밝은 조명으로 활기차고, 조금만 벗어나면 한적한 골목처럼 보인다.
- 오늘 저녁은 이곳 전통음식을 먹으며 전통 민속춤과 노래공연을 보기로 하고 타멜거리의 전통음식점을 찾았다. 공연 마지막 즈음에는 관광객들과 함께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시간도 배려한다. 포르투칼에서 왔다는 가족 일행은 우리 일행에게 엄지를 세우고 'Good! Good!' 하며 사진기에 담아 간다.
- 음식은 식판 위의 각각의 냇그릇에 담아 주고 부족하면 알아서 채워준다. 쌀로 빚은 '럭시'라고 하는 네팔 전통술은 알콜 함량이 40도 정도라는데 1잔씩 준다. 마치 청주와 담금주를 섞은 것 같은 맛이었지만 특유의 향과 약간의 단맛이 느껴졌다.(못 마시는 일행의 술은 내가 다...)



[7일차] 2018. 7. 5.(목)

박타푸르 왕궁 →

- 카트만두에 이어 2번째 도시다.
(포카라 인줄 알았는데...)
- 16세기 중엽부터 말라계 왕조의 수도였으며, 왕의 자식들의 권력싸움으로 카트만두와 파탄, 박타푸르로 분열되었다가 1768년 통일된 네팔 왕국으로 네팔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 도시였다고 하며, 네팔 역사상 가장 찬란한 중세기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
- 2015. 4. 발생한 지진 피해가 그대로인 것 같다. 네팔 민족성과 경제상황이 안 좋아 매년 조금씩 복구 한다고 한다.
-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보수 기술을 이어 받을 후계자가 없어 연로한 장인이 정과 망치로 땀 흘리며 외롭게 다듬는 모습이 안쓰럽다.
- 냐타폴라 사원으로 향하던 중 한 장인이 밀판을 힘차게 돌리며 도자기를 빚고 있어 양해를 구하고 한 번씩 포즈를 잡아본다. 여러 도자기들 중에서 화병 모양의 저금통이 인상적이었다.
- 박타푸르 왕궁을 빠져 나와 타우마디 광장에 있는 명물인 냐타폴라 사원은 5층 높이로 약 30m이며 지진 피해가 없는 듯 했고 돌계단 양옆의 코끼리, 사자 등 5쌍의 수호석상은 올라 갈수록 작아지지만 신이 가진 힘은 각각 10배씩 강하다고 한다.



← 스와얌부나트 불교 사원

- 카트만두 서쪽 언덕 위에 있는 사원으로 네팔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사원이다.
2,000년전에 건립되었다고 하며, 원숭이가 많아 원숭이 사원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오래전 카트만두 골짜기는 거대한 호수였는데, 스와얌부나트 신이 타오르는 연꽃 형상으로 이 호수 위에 나타났다고 하며, 문수보살이 커다란 칼로 산을 쪼개고 이 호수에 길을 내자 골짜기 물은 사라지고 연꽃이 있던 곳은 산꼭대기가 되었는데 훗날 침략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승려들이 연꽃을 탑으로 덮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음

- 매표소 뒤쪽의 작은 연못바닥에는 방문객이 던진 동전이 수북하고
- 계단을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가니 화려한 불탑이 있으며, 탑의 맨 아래는 큰스님 사리가 봉안되어 있고, 그 위의 하얀 돔은 '세상의 창조'를 의미하며, 돔 위의 눈은 '부처님의 눈'이며, 눈 아래에는 '네팔 숫자로 1', 오색의 천은 '다섯 부처'를 의미한다고 한다.
- 옆에 힌두 사원이 같이 있고, 개가 공존하는 사원으로, 높은 언덕에 위치하여 카트만두 시내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다.

❖ 관광객은 차량으로 갈수 있고 일반인은 365계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8일차】 2018. 7. 6.(금)

↓ 딸레쥬 신전(쿠마리가 거처하는 사원)

- 마지막 날 일정으로 '쿠마리'라는 살아 있는 여신의 거처인 쿠마리 사원...
- "쿠마리" 라는 살아 있는 7살 정도의 여신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했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요즘 같이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이런 풍습이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충격으로 와 닿았다.
- 특정 시간이 되면 안쪽 중앙 건물 3층 가운데 창으로 얼굴(절대 촬영금지)을 빼꼼 내보이고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팬서비스(?)를 하고 사라진다는데 우리가 갔던 시간과는 맞지 않아 다음 일정으로 이동해야만 했다.
- 쿠마리 사원...여러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단단한 석물로 지은 것 같은 창이나 발코니의 정교하게 새겨진 조각들이 수백 년이 지난 나무인데도 그대로 남아 있는 역사적인 건축물인데 여기 저기 못을 박아 전선 등을 고정하고 있어서 대단한 문화유산들을 아무렇지 않게 관리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웠다.



- नेपाल에 10명의 쿠마리가 있는데 가장 으뜸인 더르바르 광장 왕실 쿠마리를 '로 파탄 쿠마리', 박타푸르의 쿠마리를 '로알 쿠마리', 지방에 있는 쿠마리를 '로칼 쿠마리'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전설 같은 현실을 글을 빌려 옮겨 본다.

쿠마리(꾸마리)는 힌두교의 살아있는 여신이다. नेपाल어로 처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3~6세 소년들 가운데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되며, 쿠마리가 되고나면 스스로 걷거나 말을 하면 안된다. 여신의 몸에서 피가 나오면 부정을 뒀다고 여겨 상처가 있어도 안되며, 초경이 시작되면 쿠마리 자리에서 물러(쫓겨)나 평생을 혼자 살아야 한다. 쿠마리였던 여자와 결혼하면 남편이 죽는다는 속설이 있어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쿠마리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어 몸을 팔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이러한 쿠마리 제도가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많아져 쿠마리가 1년에 4회 정도 사원 안에서 교육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밖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은퇴 후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쿠마리의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한다.

← 더르바르 광장/네팔왕실

- 카트만두 중앙에 있는 더르바르(달밭) 광장은 시바신과 나라얀 신을 모신 사원이 에워싸고 있다.
- 카트만두 여기저기에는 지진으로 무너지거나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사원과 건물들 아래에는 아무렇지 않게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안전불감증인지 일상생활상인지 모르겠다.
- 역대 왕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 왕궁에 들러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원래 네팔은 왕정 국가였다고 한다. 2001년 6월 1일 नेपाल의 디펜드라 왕자가 총으로 무장하여 자신의 아버지인 비렌드라 왕과 아이슈와라 왕비를 비롯한 9명의 왕족을 살해한 후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왕실참극 사건이 발생한다.

자살시도로 혼수상태에 빠졌던 디펜드라왕자는 결국 사망하고 비렌드라 국왕의 동생 가넨드라가 왕으로 즉위하지만, 그는 독재왕정의 실시로 비난을 샀고 동시에 왕실참극의 실질적 배후로 지목되며 퇴위하였다고 한다. 이후 국민투표로 नेपाल의 절대 왕정시대는 종식되고 공화정부가 들어서게 됐다고 한다.

↓ 파슈파티나트 사원

- 네팔 최대의 힌두사원으로 화장터로도 알려져 있는 이곳에서 매년 시바신의 탄신일을 기해 '시바라티'라고 하는 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 화장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가에 입장료를 내고 조금 걸어가니 깨끗해 보이지 않는 마그마띠강이 나왔고, 강 건너편에서 다비식처럼 화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미 화장을 거의 마친 곳도 있었고 화장을 위해 준비 중인 2구의 시신을 지켜보고 있는데 또 다른 시신이 왔다. 이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주변에 수도를 위한 작은 사원들이 많았다. 매캐한 장작 타는 냄새로 묘한 기분이 들고 눈이 따가웠다.
- 인도의 갠지즈강과 같이 화장터인 가트에서 시신을 화장하고 그대로 이 마그마띠강에 뿌린다는데 사람이 죽으면 가급적 빨리 화장을 해 강에 뿌리는 것이 망자를 위한 길이라 한다. (빠른 시신 부패 때문일 것으로 생각해 본다.)
- 병원에서 운명하면 밤까지, 집에서 운명하면 바로 화장터로 오게 되며, 장례기간은 14일로 가족들은 13일 동안 하루 1끼만 먹고 형제, 며느리, 자매는 따로 생활한다고 한다. 또한 화장터에 간 사람은 13일째 되는 날엔 무조건 참석해야 하며, 하루 일당 준다고 한다.
- 화장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화장료는 다비식(2~3시간)은 기본 10만원이며, 새로 도입된 기계식 화장시설은 15만원이다.
- 화장하기 전에 황금색 천에 쌓인 시신의 발과 얼굴을 닦는 의식 후 콘크리트로 만든 가트에 쌓은 장작더미 위에 시신을 올려 화장한다.
- 인간의 업은 대부분 입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여 시신의 입쪽부터 불을 붙이는데 아버지는 장남이, 어머니는 막내가 먼저 불을 붙이고, 참석자들이 나무 아래에 붙이는 순서로 진행된다. 활활 타오르는 화염을 물에 적신 짚으로 시신 위에 얹어 놓으면 불이 아래 시신이 잘 타게 된다고 한다.(딸들은 참석 않는 편임)



- 마그마띠강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경계로 상류에서는 왕족과 수도승, 하류에는 일반인들의 화장이 이루어지며 이 강변의 가트 또한 상류층이 사용한다.
- 네팔 사람들의 장례문화와 생활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지만, 매일 같이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은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9일차] 2018. 7. 7.(토)

카트만두 → 인천(부산)



-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문화유산들, 시장, 먼지, 높은 산 등이 많은...
-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듯하면서도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네팔.
- 7박 9일의 네팔 배낭여행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하며 귀국...



3. 제안 및 개선 사항

- 우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을 생활 속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쉼이 있는 공원으로 각각 특색 있게 조성 및 운영
 - ▷ 성지곡수원지: 충전용 전동 모터 또는 노를 이용한 보트 운영
 - ▷ 태종대유원지: 절경과 어우러지는 모노레일 열차 설치 운영
 - ▷ 중앙공원, 민주공원, 광복기념관, 임시정부청사 연계한 호국공원
- ※ 수목원, 수련(야영)장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시설 인수 관리
- 야간 현장 사용 신호봉 개선 ⇒ 공단 제안으로 제출
 - ▷ 앞뒷면을 각각 적색과 파란색이 발광되는 신호봉 개발 적용
- 해외 배낭여행 경비 지원 방법 조정 건의
 - ▷ 아시아, 유럽 등으로 대륙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비 지원을 보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항공마일리지(거리와 시간)로 구분하여 지원

4. 배낭여행 결과

- 7박 9일이라는 일정동안 현지의 강우와 도로 유실로 치트완 국립 공원은 가지 못했지만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와 히말리야 푼힐 전망대 트레킹을 비롯한 포카라의 문화·관광지 등을 탐방하며 시야를 확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평소 가고 싶었고 보고 싶었던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 설산과 세계문화유산이 많은 네팔 문화와 생활상을 탐방을 기대감과 두근거림으로, 근무지가 다른 서먹한 동료와 한 팀을 만들어 중간에 한번씩 미팅도 갖으며 준비를 했다.
- 드디어 D-Day!
가뿐하게 떠나야 하는데 오히려 긴장하며 떠난다.
하늘 길도 너무 가깝게 생각하고 느낀 탓인지 흥분도 다 가시기 전에 네팔 카트만두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 네팔은 역시 트레킹이다.
이튿날 강우로 인한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정보가 있어서 치트완 국립공원 일정은 포기하고 포카라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푼힐전망대 1박 2일 코스를 잡았다. 차량으로 이동하면 6~7시간 걸리는 200km를 30명이 타는 쌍발 비행기는 30분 만에 우리를 도착시켜 주었다.
포카라에서 페와호수와 종유동굴을 탐방하고 다음날 새벽 같이 일어나 텅게둥가를 향하는 쥘차량에 몸을 실었다.
고지대로 오를수록 빗방울은 거세지고 중간 중간 산사태로 차도가 없어진 곳을 우회하면서 2시간 30여분을 달려 엄홍길 대장이 기증한 학교가 있는 나야풀에서 입산 허가를 받고 울퉁불퉁한 산길을 달려 텅게둥가에 도착 후 푼힐로 올랐다.

우의로 무장하고 헤아릴 수 없이 계속되는 돌계단 길을 가쁜 호흡을 가다듬으며 원주민들이 사는 조그만 마을과 롯지들을 지나고 올레리도 지나, 반단티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데 내리는 비는 더 거세지고 온몸은 빗물인지 땀인지 흠뻑 젖어 한기가 느껴졌다.

지쳤던 체력을 가다듬고 파이팅을 외치며 오늘 산중에서 1박할 롯지가 있는 고라파니를 향해 다시 출발하고 얼마 가지 않아 거머리를 조심하라는 동행하던 포터(짐꾼)가 말한다.
거머리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예사롭게 들었었는데 갑자기 여직원 한명이 기겁을 한다. 몇 시간을 빗속을 걸으며 이미 지칠대로 지친 탓인지 거머리에 물려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걷다가 휴식하며 채비를 차리다가 발견한 것이었다. 주변을 살필 때에는 안보였는데 어느새 신발위로... 어깨와 모자 위에 거머리가 붙어 있다. 나무에서도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많을 줄이야...거머리가 피가 응고되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이 있어서 롯지에 도착해도 몇지 않았다.
모두들 긴장 속에 거머리와의 에피소드를 만들며 앞서거니 뒤 서거니 하며 걸은 덕분에 오히려 힘든 줄 모르고 오른 것 같다.

고라파니 롯지에서의 저녁은 우리 입맛에는 영 아니었다.
어디서나 그렇듯이 현지식이 맞지 않는 일행이 있다. 마침 팔고 있던 신라면도 역시 현지인 입맛에 맞게 중국에서 생산해 수출된 것이었다.
하지만 대용품이 있었다. 우리의 입맛에 제격인 대선과 좋은 데이와 망고 등 챙겨온 반가운 것들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일에 웃고, 내일을 위해 오늘의 여정을 푼다.

만년설이 덮여 있는 설산과 일출을 기대하고 일출 시간 전에 푼힐전망대에 올라 1시간 가까이 기다렸건만 잔뜩 낀 구름과

안개 사이로 순간순간만 볼 수밖에 없어 사진에 담지는 못했지만 우리들 눈과 마음속에 담을 수 있었으니 다행이지 않은가. 푼힐전망대 표지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하산을 했다.

- 포커라의 여행자 거리와 한식당, 티벳난민촌과 재래시장 등을 둘러보고 쌍발 비행기를 이용해 다시 카트만두로 왔다. 힌두제단과 불교사원들, 그리고 왕궁들이 대다수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이라는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2015년 4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하지만 수백년,...아니 2000년도 넘었다는 중세기 목조건물들이 정교한 조각 작품처럼 반겼다. 곳곳에서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많은 세계문화유산이 처참히 무너져 있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 대다수 보수공사는 네팔 기술로는 할 수 없어 입찰결과 일본과 중국에서 낙찰 받아 진행되고 있다는 귀띔이다. 원상복구를 기원하면서 우리나라도 참여했더라면 좋았을건데...
- 어느덧 일정도 끝나간다. 남은 일정을 위해 열심히 검색하고 또 검색... 탐방 일정 후 중간 중간 우리의 입을 즐겁고 행복하게 했던 피자과 에베르스트 음료, 스테이크 요리 등등... 역시 다양한 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은 우리의 호퍼였다. 전통춤 공연을 보면서 전통음식을 먹는 저녁시간에는 쌀로 빚은 '럭시' 라는 술과 전통음식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여행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은 국가와 인종을 떠나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 살아 있는 여자아이를 신으로 모시는 쿠마리에 대한 이야기와 네팔의 절대 왕정시대 종식과 공화정부 수립된 역사... 파슈파니나트 사원의 화장터에서 매일 같이 인생의 삶과 죽음을 대하는 이들을 보면서 비록 우리와 다른 장례절차이지만 죽음 앞에선 인생무상을 느끼게 하는 것 같다.

- 카트만두 시가지는 미세먼지가 정말 많다. 더워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할 정도다. 도로 포장도 중앙로 정도만 되어 있어 오가는 차량 바퀴에 묻은 흙들이 휘날리는 것이다. 지금은 비 내리는 우기라서 더욱 그렇다. 시내 도로는 차선이나 신호체계 등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많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들로 어수선하지만 교통사고를 못 볼 정도이지만 나름의 질서가 있었다. 특히, 여행자 거리라고도 하는 타멜은 시장과 힌두제단, 구왕궁과 섞여있고 매연과 먼지, 가난이 묻어 있는 사람들이 혼재해 살아가는 도시다.
- 직장인의 하루 일과는 10시까지 출근하여 5시에 퇴근이며, 공무원 11시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시작되어 4~5시간 정도 근무하며, 월급은 35~80만원이다. 60세 정년이나 강제로 퇴직 시키지 못하며 퇴직 시 연금은 50% 정도 받는다고 하니, 우리나라 직장 생활과는 많이 달랐다. 나랏돈으로 생활하는 공무원들의 청렴이나 서비스가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변해야 한다고 한다.
- 이번 배낭여행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자기성찰 및 우리 공단이 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시민이 행복해 하는 명품시설 관리 전문 공기업'의 일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활기찬 직장생활을 할 것을 다짐해 본다.

5.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여부 : ☐예, ☒아니오
- 선물신고여부 : ☐예, ☒아니오

※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공단 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공단 감사실에 제출

6. 기타

- 카트만두 타멜은 여행자의 거리로 유명한 만큼 수많은 상점과 여행자들로 붐볐으며, 골목골목마다 자리한 상점들과 한 번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듯한 전선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어 저리 봐두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불안하다. 수많은 세계문화유산, 악명 높은 먼지, 익숙하지 못한 냄새 등과 무질서 속에 나름의 질서가 함께하는 여유로운 일상을 느낄 수 있는 네팔여행이었다.



항공권
신고서
비자증
환전표
지도 등

